

## 종교유무, 종교정향에 따른 귀인의 차 및 성격과의 상관성 연구

김 동 기

강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개인적 성향 즉, 성격의 하위특성, 종교적 경험, 성취정도 등이 세가지 측면의 귀인과정에서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 성취결과, 예기치 못한 일 등에 대해 어떠한 상호작용적 관계나 공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피험자는 342명(개신교 120명, 가톨릭 55명, 기타 167명)의 대학생이었다. 전체피험자들에 있어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귀인에서는 사회적 성향의 성격하위특성들 즉,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등에서 의미있는 상호작용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종교인에 있어서는 안정성, 우월성과 같은 정서적 성향의 성격하위특성들이 보다 더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교 정향에 따라서 뚜렷한 귀인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종교종류에 있어서는 안정성, 책임성, 동조성 등과의 공변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이 환경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럽거나, 기대치 못한 일 그리고 부적 사상에 적응하려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귀인이론은 이러한 사회적 사상이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을 인과적 측면에서 환경 극복 및 적응의 과정을 이해하려는데 공헌되었다.

최근까지 귀인이론은 주로 다양한 정보처리 방략 혹은 동기적 과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Guimond 등(1989) 그리고 Hewstone과 Jaspars(1984) 등은 귀인 과정에 있어서 보다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귀인 경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교육적 상황이나 전문기술 훈련 등에서 귀인경향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이와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귀인과정의 달라져야 한다는 접근방법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었다.

또한 귀인과정의 평가방법들에 관한 이론이 최근에 대두되어, Russell 등(1988)과 같은 학자는 인과귀인

과정의 측정을 크게 나누어 특질접근과 상황적 접근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 특질접근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건을 설명하려는 개인의 일반적 경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귀인의 성향적 측정을 발전시키려는 이러한 시도는 개인이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상황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서 귀인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Weiner(1985, 1986)의 이론을 중심으로한 문헌들에서는 상황적 특성들(예, 합의성과 일관성정보)이 개인이 행하는 인과귀인에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질접근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그러나 상황적인 경우와는 달리 성격특성(예,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성공-실패의 결과들간의 인과귀인에서 상관성이 있다는 몇몇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듯이 상황적 요인 보다도 귀인특질내의 개인적 성향이 더 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귀인과정에서 더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접근과 관련된 한 측면의 귀인과정

에 있어서 몇몇 귀인이론 가들은 인과적 귀인과 책임성 귀인이 개념적 수준에서 달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Fincham, Jaspars, & Hewstone 1983). 즉, 인과 귀인은 사람의 행동과 성향간의 상관성과 관련이 있고, 책임성의 귀인은 행위와 결과간의 상관성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정할 수 있는 종속변인은 인과성, 책임성, 비난, 처벌 등이고, 각각의 종속변인들은 서로 필요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이같은 접근 방식의 귀인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 성공적 성취, 종교적 경험, 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 등에 관련된 각각의 연구는 많았다(예, Forsyth 등, 1981; Guimond 등, 1989; Taylor 등, 1984; Miller 등, 1985; Skaalvik & Hagtvet, 1990; White, 1991; Fisk & Taylor, 1991). 그러나 앞서 밝힌 특질적 접근근대의 사회적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귀인적 상호 영향성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Wong(1991)은 귀인이론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현상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거나 부적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귀인과정은 세가지 유형의 질문방식에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귀인적 방식(attribution)-대응적 평가(coping appraisal)-재평가(re-evaluation)의 과정으로서, 귀인적 방식은 인과적 탐색을 하고, 대응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극복수단을 평가함과 동시에 행동과정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고, 세번째의 재평가 과정은 추구의 가치나 목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실존적 귀인(existential attribution)이라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과적 귀인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상식적인 설명인 반면에 실존적 귀인이라는 의미와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직관적 주관적인 이해라고 하고, 성취영역이나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실존적 귀인의 역할에 관련된 실증연구를 제시하면서 인과적 귀인(causal attribution)과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Wong의 이론은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을 다루는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일부를 검증해보게 되었다.

김동기(1991)는 종교정향과 사회현상의 부적결과에 대한 귀인의 연구에서 사회현상에 대해 개인의 태도나 종교적 정향(religious orientation) 및 신앙도에 따른 귀인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연구는 사회현상의 부적

결과(예, 사회병리적 현상)에 대한 책임성 귀인의 과정은 성숙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서 차이가 날 것이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하나의 방법은 종교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참된 믿음(예, Allport의 성숙종교)을 가지는 경우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부분적이지만 개인의 종교적 경험이나 종교적 태도에 따라 사회적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우리탓 혹은 그들탓)이 다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귀인을 종교심리학에 적용시키는 논의에서, 몇몇 학자들(예, Proudfoot & Shaver, 1975)이 귀인이론은 개인의 경험 가운데 종교적 경험에 대한 근본적 해석과 명칭부여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원리와 신념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특정 사상에 있어서 힘이나 통제에 대한 귀인을 할 경우에 행위자나 행위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힘에 대한 인과적 추론과정등(예, 물환론과 마술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종교적 정향과 성숙된 성격의 관련성은 Allport(1937)에 의해서 제안되어, 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은 외면적 정향(extrinsic orientation)으로서 종교를 생활에 수단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내적으로 동기화된 개인은 내면적 정향(intrinsic orientation)으로서 종교가 삶의 목적이며 종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론으로 발전되었다(Batson & Ventis, 1982). 그후 Kahoe(1966)와 같은 학자는 내면적 외면적 작업 동기화를 16PF(Cattell) 성격검사에 관련지어 연구하여 그 두 정향은 성격구조내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는 원천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있어서는 종교적 정향이 보편적 성격 근거를 가지고 있고(Hunt & King, 1971), 내면성과 외면성은 마치 두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다양성과 분리성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발달하는 성격내에서 서로 다른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Beglev et al, 1983; Kahoe, 1985).

본 연구는 사회적 조건하에 차이가 나는 귀인 경향을, 개인을 중심으로한 특질적 접근 방식으로 고찰하는데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전제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이어온 인과귀인 연구에서는 상황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인과적 탐색(예, 정보, 신념, 동기화)의 귀인행동을 이해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지만, 본 연구의 접근방식은

Kelley와 Michela(1980)의 이론에서와 같이 사회적 문화적 행위(예, 기대, 책임성, 도덕적 행동)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귀인의 결과를 귀인적으로 해석하는 특질접근방식으로 고찰하고자한다 것이다. 이러한 특질접근방식에서 귀인의 결과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일관성이 있는 것중의 하나가 개인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위해서 개인의 성격특성, 종교적 정향 및 경험, 종교적 성향, 성취(학업성적)의 정도 등이, 사회적 현상의 부적 결과 등과의 상호관계성 및 상호영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서 여러측면의 가정적 연구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성격의 하위특성과 귀인간의 관계, 귀인에 대한 성격과 성취(학업성적)간의 상호작용, 종교적 경험 및 종교정향에 관한 관계성, 종교유무나 종교종류에 따른 귀인에 대한 성격과 성취(학업성적)간의 상호작용, 귀인에 대한 성격과 신앙정도의 상호작용, 귀인에 대한 성취(학업성적)와 종교종류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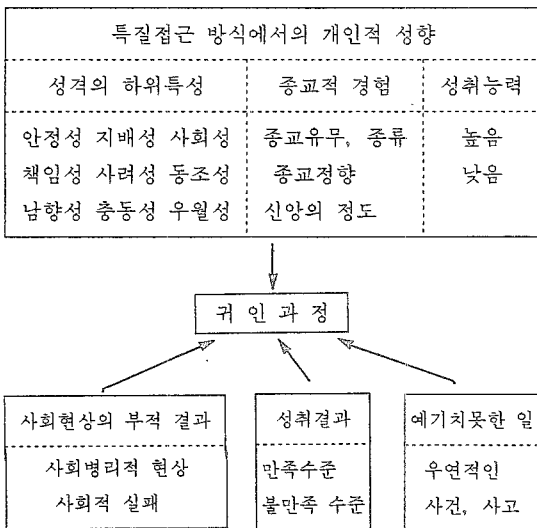


그림 1. 본연구에서 검토하고자한 특질접근에서의 사회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개인적 성향자원의 귀인연구 내용

### 연구문제

1. 성격의 하위특성에 따른 귀인의 차이가 피험자전체, 종교인 등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2. 귀인에 있어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은 상호작용을 하는가?
3. 종교경험 및 종교정향에 따라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4. 귀인에 있어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은 상호작용을 하는가?
5. 귀인에 있어서 종교경험에 따른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은 상호작용을 하는가?

### 방 법

#### 피험자

피험자는 강남대학교에서 심리학강의를 수강하는 342명(남자 121, 여자 221)의 학생으로 하였다. 이중 개신교가 120명(남자 32, 여자 88), 가톨릭이 55명(남자 13, 여자 42), 기타 종교가 26명(남자 13, 여자 13), 무종교가 141명(남자 63, 여자 78)이었다.

#### 측정도구 및 절차

성격검사는 표준화 성격진단검사(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위음, 1990년)를 사용하였고, 귀인에 관한 측정도구는 김동기(1991)의 연구에서 사용된 귀인척도 문항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모두 3종 9개(A형 5개, B형 2개, C형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정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Allport와 Ross(1967)가 제작한 내면적 외면적 종교정향척도(11분척, 20문항)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예, 내가 도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한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피험자의 학업성취에 관한 것은 지난학기의 학기말 성적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성격진단검사는 기술척도에 해당하는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우월성 등 9개의 하위특성과 우울증 불안증 편집증 내폐증 신경증 등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척도의 하위특성들만 자료로 이용하였다. 원론적으로 성격검사는 개인의 인성이나 품성을 총괄적 전체적으로 특징을 진단하여야 하지만, 성격을 객관화하는 방법상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목록법 (inventory type)에 의한 수량화 방식으로 성격의 하위특성별로 점수를 추출하되, 검사의 채점기준에 의한 백분위 점수를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귀인척도 문항중에 A형(5개 문항)은 내의 귀인에 관한 것으로서 ① 타락선거풍토 ② 환각제 사용자 증가 ③ 의제담배 소비증가 ④ 정비불량 자동차사고 ⑤ 중병 진단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고, B형(2개 문항)은 실존적 귀인에 관한 것으로서 ① 작업성취 저하 ② 학업성적 부진 등이고 C형(2개 문항)은 마술성 귀인을 보고자한 것으로서 ① 기도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 ② 기도후 아파트당첨됨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A, B, C형 귀인척도는 양극성의 5분척 2개를 연합하여 11분척 점수로 환산하되 무응답은 중간점수로 처리하였고, 각각 한개씩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A형] 선거기간에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알게 모르게 건네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든지 금품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불온한 생각으로 금품을 주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금품을 은근히 바라는 유권자도 나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려면 이런 타락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자신들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것이다. 당신은 이런 타락선거 풍속은 누구의 탓에서 연유된다고 생각하며,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만 ○표를 하고, 그 정도에도 표시를 하시오.

[B형] 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수의 부모는 부진한 그의 학교 성적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의 부모는 억지로 시켜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노력하려는 생각을 갖게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타이르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영수는 자신의 성적부진을 걱정하고 있지만 빼놓아진 아이는 아니었다. 영수가 이렇게 된대 대한 연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만 ○표를 하고, 그 정도에도 표시를 하시오.

[C형] P씨 부부는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기소유의 집이 없었다. 신도시 건설회사에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2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도인 P씨 부부는 분양

신청을 한후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서 새벽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였다. P씨 부부가 아파트에 당첨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만 ○표를 하고, 그 정도에도 표시를 하시오.

이들 검사나 척도들을 피험자에게 성격검사, 귀인척도, 종교정향척도의 순서로 제시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는 학년, 성별, 연령, 종교, 종교를 가진 해수, 신앙의 정도등을 질문하였고, 질문지 조사는 1992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AS에 의한 검증 방식으로 하였다.

## 결 과

### 성격의 하위특성과 귀인간의 관계 검증

성격의 특성에 따라 귀인의 방향이나 귀인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백분점으로 되어있는 성격의 하위특성과 9개의 귀인점수간의 단순변량분석을 한 결과가 표 1과 같다. 표 1에서는 전체피험자를 대상으로, 9개의 하위특성특성과 귀인점수간의 모든 경우의 변량분석 결과중에서 유의있는 관계들만 제시되어 있다. 동시에 종교인들에 있어서 성격하위특성과 귀인점수들 간의 단순 변량분석결과를 표 2에 나와 있다.

<표 1> 성격의 하위특성과 귀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전체피험자)

귀인(3종 9개문항)	df	SS	MS	F
지배성과 마술성귀인(문항2)	(1, 341)	0.99	0.99	4.36*
사회성과 내의귀인(문항5)	(1, 341)	1.08	1.08	4.83*
책임성과 내의귀인(문항1)	(1, 341)	1.41	0.70	3.37*
사려성과 마술성귀인(문항2)	(1, 341)	0.89	0.89	3.93*
남향성과 마술성귀인(문항2)	(1, 341)	0.95	0.95	4.22*
우월성과 내의귀인(문항5)	(1, 341)	0.93	0.93	4.16*

\*  $p < 0.05$

연구결과에서 기대되었던 것은 '책임성'과 내의귀인간의 관계로서, '책임성'이 강할수록 내적귀인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전체피험자(표 1)에서는 의미있게 나왔지만(비종교인도 동일함), 종교인(표 2)의 경우는 그

<표 2> 성격의 하위특성과 귀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종교인)

귀인(3종 9개문항)	df	SS	MS	F
안정성과 실존적귀인(문항1)	(1, 174)	1.44	1.44	6.03*
지배성과 마술성귀인(문항2)	(1, 174)	1.41	1.41	5.81*
사회성과 내외귀인(문항4)	(1, 174)	0.86	0.86	4.03*
남향성과 실존적귀인(문항1)	(1, 174)	1.29	1.29	5.37*
우월성과 마술성귀인(문항1)	(1, 175)	1.00	1.00	4.29*
우월성과 마술성귀인(문항2)	(1, 175)	0.96	0.96	3.93*

\*  $p < 0.05$

렇지 않았다. 각 관계중에서 '사회성'과 내외귀인간의 F比 값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성향의 특성들의 高低에 따라 내외귀인의 차이가 뚜렷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귀인에 있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서 성격특성들간의 변별은 '책임성' 보다는 '사회성'에서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인 단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에 있어서는 '사려성' 高低가 마술성 귀인에 서로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인에 있어서는 마술성 귀인이 '우월성'의 성격과의 상호작용에서 모두 강한 차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종교인은 '우월성'이 강할수록 마술적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존적 귀인에서 차의 의미를 보이고 있는 성격의 하위특성은 종교인에 있어서 '안정성'과 '남향성'인 것으로 보아, 종교인의 '안정성' 및 '남향성'의 高低가 생의 의미나 가치관에서 다르게 인지되어 인과적 귀인과는 달리 실존적 귀인에서 상호작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귀인에 대한 성격과 학업성적의 변량분석

표 3은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의 2요인 변량분석을 한 결과 '사회성', '동조성', '충동성' 등 3개의 하위특성들이 각각 상호작용에서 의미있는 F比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 중 '사회성'은 내외귀인의 문항 5에 관한 것이고, '동조성'은 내외귀인의 문항 4, '충동성'은 내외귀인 문항 2에 해당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 세측면의 하위성격특성에서 '충동성'이 학업성적과의 관계에서 내외귀인의 차이를 가장 큰 F比의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환언하면 내외귀인에 있어서는 '충동성'과 학업성적이 상호작용하여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성'에 있어서는 집단내의 F比도 의미있게 나타났고 ( $F=9.13$ ), 학업성적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사회성'은 학업성적과 상호작용적으로 귀인의 방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의 2요인 변량분석 결과(전체피험자)

변량원	df	SS	MS	F
사회성	1	84.12	84.12	9.13**
학업성적	1	8.69	8.69	0.94
사회성×학업성적	1	40.20	40.20	4.36*
오차	337	3105.78	9.21	
-----				
동조성	1	2.98	2.98	0.30
학업성적	1	1.29	1.29	0.13
동조성×학업성적	1	40.07	40.07	4.04*
오차	337	3345.91	9.92	
-----				
충동성	1	0.15	0.15	0.02
학업성적	1	0.02	0.02	0.00
충동성×학업성적	1	63.65	63.65	5.99*
오차	337	3579.43	10.62	

\*  $p < 0.05$  \*\*  $p < 0.01$ (귀인문항: 사회성-내외5, 동조성-내외4, 충동성-내외2)

### 종교경험 및 종교정향에 관한 검증

종교를 가진 피험자의 종교적 성향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종교를 가진 피험자의 평균 종교경력은 12년이고 종교정향(9분척)에 있어서는 외면적 정향이 4.11점 내면적 정향이 5.85점으로 나왔다. 또한 종교를 믿는 정도(신앙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열심이다'는 7.4%, '열심인 편이다'는 30.3%, '보통이다'는 46.9%, '관심이 적은편이다'는 15.4%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피험자의 80% 정도가 보통이상의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내면적 정향과 외면적 정향은 서로 부적 상관을 확실히 보이고 있고, 신앙의 정도와 외면적 정향에서도 뚜렷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앙의 정도와 내면적 정향은 상당한 부적 상관관계에 있고, 종교경력과 신앙도의 관계도 약한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음이 특이하다. 그리고 종교경력은 전반적으로 외면적 정향과 내면적 정향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 종교경력, 신앙의 정도, 내-외 종교정향간의 상관관계

	신앙도	외면적	내면적
종교경력	-.251	-.148	.159
신앙도		.388	-.571
외면적			-.375

〈표 5〉 종교에 따른 미술성 귀인의 변량분석 결과

미술성 귀인(2개 문항)	df	SS	MS	F
종교유무와 문항(2)	(5, 312)	17.57	3.51	19.84***
개신교, 가톨릭과 문항(1)	(1, 173)	2.17	2.17	9.61**
개신교, 가톨릭과 문항(2)	(1, 173)	7.76	7.76	38.17***
내면적정향과 문항(2)	(1, 173)	7.21	7.21	34.49***
신앙정도과 문항(2)	(1, 91)	2.06	2.06	9.49**

\*\*  $p < 0.01$     \*\*\*  $p < 0.001$

앞서 예시한 바와같이 성취한 결과가 기도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리는 경우를 물활론적 사고 혹은 미술주의적 사고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표 5는 종교유무, 종교종류, 신앙의 정도, 내면적 정향 등에 대해 미술성 귀인의 차를 검증한 결과이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교에서는 미술성 귀인이 기대한 대로 차이가 나고 있고, 내면적 정향을 가진 종교인이 미술성 귀인에서 높은 F比의 값으로 의미있는 차를 나타내고 있어, 외면적 정향 보다 내면적 정향에 있는 사람이 더 기도에 의한 기원을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비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두

종교간의 미술주의적 사고에서 신앙적 신념이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인의 귀인에 대한 성격과 학업성적의 변량분석

종교를 가진 사람의 사회현상에 대한 귀인적 반응에 있어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간의 공변성을 검증해 보는 변량분석에서, 표 6과 같이 9개의 하위특성중 4개의 하위특성에서 유의미한 차를 나타내고 있다. '안정성' '책임성' '동조성' 모두가 종교적 성향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하위특성이며, '충동성'은 부적 상관의 공변성을 띠고 있었다. 특히 '동조성'은 내외귀인의 문항이 아니라 실존적 귀인의 문항으로서, 종교인의 학업성적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는 동조성이 높거나 낮은 사람이 사회적 사상에 대해 인과적 귀인과는 가치관에서 다른 실존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F比의

〈표 6〉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의 2 요인변량분석 결과(종교인)

변량원	df	SS	MS	F
안정성	1	0.07	0.07	0.01
학업성적	1	0.23	0.23	0.03
안정성×학업성적	1	55.56	55.56	7.17**
오차	168	1301.32	7.74	
책임성	1	2.15	2.15	0.21
학업성적	1	2.19	2.19	0.21
책임성×학업성적	1	56.91	56.91	5.51*
오차	168	1735.70	10.33	
동조성	1	12.78	12.78	1.25
학업성적	1	12.19	12.19	1.20
동조성×학업성적	1	51.36	51.36	5.04*
오차	168	1712.52	10.19	
충동성	1	8.61	8.61	0.84
학업성적	1	12.61	12.61	1.22
충동성×학업성적	1	49.24	49.24	4.78*
오차	133	1370.08	10.30	

\*  $p < 0.05$     \*\*  $p < 0.01$

(귀인문항: 안정성-내외1, 책임성-내외2, 동조성-실존2, 충동성-내외2)

값이 가장 높은 하위특성은 '안정성'으로서 종교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체피험자를 대상으로한 변량분석에서는 '사회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등이 의미있는 차를 보이고 있고, 비종교에서는 '남향성' '충동성'에서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귀인항목중에서 마술성 귀인의 항목은 어느 경우의 집단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격과 성격간의 공변성을 검토하는데는 마술성이 의미가 없는 항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귀인문항 수는 한개로써 점수화 되었지만, 두개 이상의 귀인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점수를 변량으로 계산한 결과에서는 전체피험자 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귀인에 대한 성격 및 학업성적과 종교종류의 변량분석

표 7은 종교종류(개신교, 가톨릭)에 따라 귀인의 변량과 성격의 하위특성간의 2요인변량분석을 한 결과이다.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간의 공변적 상호작용의 검증(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 7에서도 종교인에서 공통적으로 '책임성' '동조성' '안정성' 등의 하위

<표 7>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종교종류의 2요인변량분석 결과(종교인)

변량원	df	SS	MS	F
안정성	1	1.16	1.16	0.15
종교종류(개신교, 가톨릭)	1	3.36	3.36	0.44
안정성×종교종류	1	43.97	43.97	5.69*
오차	171	1321.67	7.72	
책임성	1	12.05	12.05	1.15
종교종류(개신교, 가톨릭)	1	0.02	0.02	0.01
책임성×종교종류	1	51.36	51.36	4.92*
오차	171	1784.53	10.43	
동조성	1	3.29	3.29	0.42
종교종류(개신교, 가톨릭)	1	5.15	5.15	0.66
동조성×종교종류	1	36.76	36.76	4.74*
오차	171	1327.13	7.76	

\*  $p < 0.05$ (귀인문항 : 안정성-내외1, 책임성-내외2, 동조성-내외1)

<표 8> 귀인에 대한 학업성적과 종교종류의 2요인변량분석표(종교인)

변량원	df	SS	MS	F
학업성적	1	0.14	0.14	0.02
종교종류(개신교, 가톨릭)	1	4.15	4.15	0.53
학업성적×종교종류	1	31.03	31.03	3.96*
오차	171	1338.69	7.82	

\*  $p < 0.05$ (귀인문항 : 내외1)

특성에서 의미있는 F比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세가지 성격 하위특성들내에서 개신교나 가톨릭이나에 따라 귀인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격의 하위특성중에서도 '안정성'이 F比 5.69로 가장 높고, '책임성' '동조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표 8은 종교가 개신교 혹은 가톨릭이면서 학업성적이 높거나 낮은 피험자가 응답한 귀인적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이는 서로 다른 종교에서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내외 귀인에 대한 형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귀인에 대한 성격과 신앙정도의 변량분석

표 9는 신앙의 정도에 성격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서

<표 9>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신앙정도의 2요인변량분석 결과(종교인)

변량원	df	SS	MS	F
우월성	35	296.01	8.45	1.38
신앙정도	1	1.50	1.50	0.25
우월성×신앙정도	17	198.11	11.65	1.90*
오차	39	239.45	6.13	
지배성	1	29.53	29.53	3.26
신앙정도	1	12.53	12.53	1.39
지배성×신앙정도	1	52.74	52.74	5.83*
오차	89	805.22	9.04	

\*  $p < 0.05$ (귀인문항 : 우월성-내외1, 지배성-내외2)

귀인의 변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귀인과 관련되어 성격과 신앙정도의 공변성에서는 '우월성'과 '지배성'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종교인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사회현상을 귀인하는데 있어서 우월하거나 지배적인 사고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집단내의 변량에 있어서 성격의 하위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가 나타나는 변량원이 없지만 신앙정도에서는 두 경우(표 9) 모두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 논 의

서론에서 전제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 원인에 대한 정보를 조정할 때, 사람들이 정보를 선택하는지 안하는지 혹은 행동이 사회적 역할에 의해 압력을 받는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끔 그 인과의 설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있었다. 심지어 상황적 요인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각자는 행동을 영구적인 성향 즉, 태도 혹은 성격특성에 귀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Fisk & Taylor, 1991). 이와같은 맥락에서 상정된 본 연구의 첫번째 과제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같은 일관성이 있는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귀인과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표 1, 표 2). 그러한 성격의 하위특성들중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책임성'으로서, 책임에 대한 개인적 귀인은 사회적 사상에 대한 자기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인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사상이나 현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 내적인 것으로 돌리느냐 외적인 것(타인 혹은 상황)으로 돌리느냐를 몇가지 측면에서 검증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과에서 나타난대로 피험자 전체에서는 '책임성'이 의미있게 나타났지만, 종교인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나쁜 결과 보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고(즉, 성공의 경우는 개인적 능력과 노력에 귀인),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하려 한다고(즉, 나쁜 운과 상황적 압력에 귀인) 하였다(예, Miller & Schlenker, 1985). 이들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종교인이 아니고 귀인의 대상도 각기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종교인에 있어서는 사회적 부적 결과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는 변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어 질 수 있고, 또한 다른 변인이 매개되는 경우(예, 학업성적)에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검증되어 나타난 것은 귀인에 대한 성격의 하위특성과 학업성적간의 변량분석의 결과이다. 학업성적과 관련된 개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분석에서 자존심이나 자아개념이 상관성이 있다는 결과는 많이 볼 수 있다(예, Skaalvik & Hagtvet, 1990). Skaalvik(1986a)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능력의 자아개념간에 0.4-0.6의 상관관계가 있고, 학업성적과 전체적 자존심간의 상관 계수가 0.2-0.3으로 나와있다. 능력의 자아개념에 해당되는 성격의 하위특성은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대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성' '동조성' 등이 의미있게 된 것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응답을 측정하는 본 연구에서 귀인에 관한 문항들이 사회적 성향을 지닌 성격특성들을 자극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특질점근방식에서 세번째의 개인적 성향은 종교적 경험에 관련된 것으로서 종교경력, 신앙의 정도, 종교정향 등이 성격이나 성취능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현상, 성취결과 등에 대한 귀인의 차이를 보고자 한 것이다. 먼저 종교정향에 대한 고찰에서 내면적 정향과 외면적 정향간의 상관계수(표 4)가 -.37로서 Batson과 Ventis(1982)연구의 -.14 그리고 Kahoe(1975)연구의 -.15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정향에 의해서 성격이나 학업성적과 관련하여 귀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는데는 실패를 하였다. 가장 두드러진 차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내면적 정향과 마술성 귀 인간의 변량분석에서 나타났다. 즉, 기원의 기도를 통하여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은 외면적 정향(의미없는 차이)에서 보다 내면적 정향을 가진 종교인에서 더 강하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물론 내면적 외면적 정향의 개념적 구분은 단일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 틀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비평(예, Dittes, 1971)도 나왔고, 두 정향의 상대적 강약 정도를 계산하여 구분하는 4분 유형론(Donahue, 1985)이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원래의 Allport 의도를 검증해내지는 못 하였기 때문에 두 정향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종교종류에 따른 성격 혹은 학업성적의 정도에서 개인의 차이를 검증하는 분석(표 7)에서, 성격 측면에서는 '책임성' '동조성' '안정성' 등이 종교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적어도 종교적 성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성격의 변인들에서 종교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성'에 있어서 차의 의미가 종교종류에 따라 그 영향성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표 1, 표 2 참조)과는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술성 귀인에 있어서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차이(표 5)는 두개의 문항 모두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독교의 신앙이지만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마술주의적 현상에 더 강하게 귀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종교종류와 학업성적간의 변량분석(표 8)에서도 귀인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인지에서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Vecchio(1980)의 종교적 유착(religious affiliation)에 관한 연구에서, 작업 만족도와 작업의 질(직업적 명성)과의 상관성을 검증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종교들(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무종교, 타종교)간의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Park 등(1990)은 생활 스트레스의 중재자로서 내면적 종교와 종교적 극복을 가톨릭과 개신교의 비교연구에서 상당한 차이를 주장하였다. 즉, 가톨릭 신자는 통제 가능한 부정 사상에 대하여 강한 종교적 극복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억압을 덜 받고, 개신교 신도는 통제 가능한 부정 사상에 대하여 강한 종교적 극복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억압을 더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통제 불가능한 부정 사상에 대해 개신교 신도는 약한 내면적 종교적 극복을 시도하는 사람일수록 억압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적과 성격간의 공변성을 검증해 본 경우와 종교종류와 성격간의 공변성을 검증했을 경우에 '충동성'을 제외한 '안정성' '책임성' '동조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의미 있는 성격변인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 결과는 학업 성적과 성격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종교인의 신앙적 특성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종교종류와 성격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종교종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차적으로 고찰하고자 한 것중의 하나는 Wong(1991)이 주장한 실존적 귀인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 사상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의 귀인적 반응은 두가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가지 수준은 사람들이 인과적 탐색을 하는 것 즉,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문제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행위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경우이고, 더 깊은 수준은 실존적 탐색을 하는 것 즉, 개인적 위기에서 의미와 응집성 감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경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실존적 귀인란 의미와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직관적, 주관적인 이해라고 하였고, 인과적 귀인은 적절한 원인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종교인의 성격특성과 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에서 '안정성'과 '남향성' 모두가 실존적 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약하지만 부적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존적 귀인에 있어서 '동조성'과 학업성적과의 공변성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F_{(2, 104)} = 5.04$ 로서 차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실존적 귀인은 내외귀인과는 다른 성격의 하위특성들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존적 귀인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동기(1991). 종교정향과 사회현상의 부적 결과에 대한 귀인의 연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6, 22-31.
- 김동기(1992). Allport와 Batson의 종교정향척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평.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23집.
- 윤주병(1986). 종교심리학. 서울:서광사
- Batson, C.D., & Ventis, W.L.(1982). *The religious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mmins, B., & Lockwood, J.(1978). The effects on intergroup relations mixing Roman Catholics and Protestan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

- ogy. 8, 383-386.
- Donahue, M.J.(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 The empirical researc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418-423.
- Donahue, M.J.(1985).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ness :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400-419.
- Fisk, S.T., & Taylor, S.E.(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 McGraw-Hill.
- Forsyth, D.R., Berger, R.E., & Mitchell, T. (1981). The effects of self-serving vs. other-serving claims of responsibility on attraction and attribution in group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59-64.
- Guimond, S., Begin, G., & Palmer, D.L.(1989). Education and causal attributions : The development of "Person-Blame" and "System-Blame" ideolog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2, 126-140.
- Jaspars, J., Fincham, F.D., & Hewstone, M. (1983).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 Conceptual developmental and social dimensions*. London : Academic Press.
- Kahoe, R.D.(1974). Personality and achievement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812-818.
- Kahoe, R.D.(1985). The development of intrinsic and 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4, 408-412.
- Kelley, H.H., & Michela, J.L.(1980). Attribution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s of Psychology*, 31, 457-501.
- Kippenberg, H.G., Kuiper, Y.B., & Sanders, A. F.(1990). *Concepts of person in religion and thought*. Berlin : Mouton de Gruyter.
- Lakin, C.A.(1990). Self-consciousness in members of a new religious movement : The Rajneesh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0 (4), 557-558.
- McClain, E.W.(1978) Personality differences between intrinsically religious and nonreligious students :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159-166.
- Miller, R.S., & Schlenker, B.R.(1985). Egotism in group members : Public and private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group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 85-89.
- Moehle, D.(1983). Cognitive Dimensions of religious experi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22-145.
- Park, C., Cohen, L.H., & Herb, L.(1990). Intrinsic religiousness and religious coping as life stress moderators for Catholics versus Protesta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62-574.
- Proudfoot, W., & Shaver, P.(1975). Attribution theory and psychology of relig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317-330.
- Russell, D., McAuley, E., & Tarico, V.(1987). Measuring causal attributions for success and failure : A comparison of methodologies for assessing caus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248-1257.
- Skaalvik, E.M., & Hagtvet, K.A.(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concept : An analysis of causal predominance i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92-307.
- Smith, M., & Knowles, A.D.(1991). Contributions of personality, social network, and cognitive processes to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women religious and other mature

- Australian wom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3), 355-365.
- Taylor, S.E., Lichtman, R.R., & Wood, J.V. (1984). Attributions, beliefs about control, and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489-502.
- Vecchio, R.P. (1980). A test of a moderator of job satisfaction-job quality relationship: The case of religious affili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195-201.
- White, P.A. (1991). Ambiguity in the internal/external distinction i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59-270.
- Wong, P.T.P. (1991). Existential versus causal attribution: The social perceiver as philosopher. In Zelen, S.L. (Ed.). *New models, new extensions of attribution theory*. New York: Springer-Verlag.

## The Relation of Personality and Attributional Difference according to Religious Experience

Dong-Gi Kim

Kangnam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ee if the personal disposition – personality traits, religious experience and degree of achievement – has any interactional relation or covariance to negative results of the social phenomena, achievement, and unexpected events in the three aspects of attributional process.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traits and attribution, the interaction between attribution according to personality and academic achievement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ality according to religious experience and religious orien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342 university students. The tools for the personality diagnostic testing is of the inventory type, the questionnaire is made of three scales for attribution and the scale for the religious orientation (intrinsic and extrinsic) comprises 20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n the attribution of the social phenomena of the whole subjects, the personality traits of the social disposition – dominance, sociability, and responsibility – have significant reciprocal effects, but among Christians, such personality traits as emotional stability and superiority, appeared as having strong reciprocal effects. Further, though significant attribut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ligious orientations was not found, yet the covariance of emotional stability, responsibility and conformity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